



필리파 라모스

가능한 사랑

이 에세이는 한 편의 영화가 이뤄낼 수 있는 것을 상상하기 위해 영화의 내용을 들여다 본다. 중세를 배경으로 하는 1980년대의 판타지 영화인 《레이디호크》를 출발점으로 여성과 늑대, 남성과 매 사이에서 어떤 관계와 정서가 나타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종의 구분을 넘어선 사랑이 인간과 자연계가 서로 연결되고 돌보며 맞물리는 방식을 어떻게 갱신할 수 있을지 고찰한다.

10대 초반,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사랑의 불가능함이라는 평범한 이야기를 색다르게 풀어낸 로맨틱 판타지 영화인 《레이디호크》를 좋아했다. 13세기 이탈리아 아퀼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레이디호크》는 아퀼라의 주교(존 우드)에게 저주 받은 이사보 단주(미셸 파이퍼)와 에티엔 나바르(룻거 하우어) 커플의 모험을 그린 영화다. 짝사랑에 빠진 주교는 흑마법을 써서 두 남녀를 동물로 변신시키고, 성경의 창조 질서와 다윈주의 진화론을 한 번에 뒤집는다. 여자는 낮에는 매가 되었다가 밤에는 인간으로 돌아오고, 남자는 낮에는 제 모습을 유지하다 밤에는 늑대로 변한다. 나는 호러 장르가 아니라 로맨틱한 분위기로 묘사된 이 두 사람의 반인반수적인 능력에 매혹되었다. 인간, 늑대, 새의 형태를 오가며 종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이다. 최근에 이 영화에 대해 다시 생각하면서, 이 작품이 내가 종을 넘나드는 정동에 품었던 초기의 관심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고 내가 지닌 사회적, 정서적 상상력에 어떤 규범적 패턴을 침투시켰는지 궁금증을 품게 되었다.

영화의 플롯은 주교의 너무 지나치지 않은 사악함으로 인해 진행된다. 그는 이 커플을 민달팽이나 모기처럼 “하등한” 동물로 바꿔버리거나 물고기와 박쥐처럼 서로 만나기 힘든 존재로 변신시켜 생물학적 차이를 키울 수도 있었으니까. 대신, 매와 늑대는 오랜 시간에 걸쳐 야생성과 위엄에 대한 정치적 비유와 상징적 재현의 소재가 되어 온 고전적 비유를 구현해 보여준다. 이 커플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피조물의 상황에 맞춰 존재할 수 밖에 없다면, 변신을 한 상태는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동물의 종류와 관련되어 있다.



《레이디호크》의 내러티브는 두 사람이 동물이 됨으로써 사랑을 겪고 표현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암시하는 듯하다. 이 영화는 서로 다른 종이 동맹을 맺을 가능성을 상상하는 대신, 각자의 ‘움벨트’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를 강조한다. 이 영화의 영웅들은 저주에 걸린 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만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이 상황을 되돌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들은 “밤이 없는 낮과 낮이 없는 밤”인 개기일식이 일어날 때 주교와 함께 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 주교의 눈 앞에서 여자가 새로 변하거나 남자가 늑대로 변해야 저주가 풀리는 것이다. 마치 이 성직자가 가장 크게 원했던 건 여인의 사랑이 아니라 그토록 강렬한 성육신의 광경을 단 한 번이라도 목격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모습이다.

1985년 개봉한 《레이디호크》는 영화 감독이자 《슈퍼맨 1》, 《엑스맨》, 《리셀 웨폰》, 《오멘》, 《구니스》 등의 제작자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리처드 도너가 감독한 작품이다. 이 영화는 역사적 맥락에 대해 몇 가지 흥미로운 요소를 도입한다. 영화의 사운드트랙을 총괄한 영국의 프로그레시브 록 뮤지션 앨런 파웰, 앨런 파슨스와의 협업이 그 가운데 한 요소다. 또 다른 요소는 동물로 변해버린 두 연인을 환상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영화의 내러티브는 전반적으로 중세 시대에 흔했던 폭력과 잔인함이 섞인 비유를 많이 활용하며 인종차별, 능력주의, 여성혐오의 고정관념을 강화한다. 이는 남성과 여성, 인간과 비인간 캐릭터를 대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드러나며, 여주인공과 장애가 있는 농민 여성 한 명을 제외하면 유색인종 및 여성 배우가 영화에서 대부분 배제되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또한 이 영화는 루포 포비아, 즉 자연에 대한 두려움의 일반화를 조장한다. 이것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노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10대 시절에는 이런 한계점들을 포착하지 못했지만, 지금에 와서 이 영화가 어떤 것들을 암시했는지 파악하고 그 대신 어떤 성취를 이뤄낼 수 있었는지 상상해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1. Cf. Elizabeth Marshall, *Wolves in Beowulf and Other Old English Texts* (Suffolk: Boydell and Brewer, 2022).

판타지 영화에 대한 다우너의 관심을 감안할 때, 이 영화는 두 사람이 각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사랑과 욕망을 표현하는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주교의 저주가 역전되어 여성과 늑대, 매와 남자가 서로의 친밀함을 방해받지 않고 외려 그들의 차이로 인해 친밀함을 증폭해 혼종성과 종간의 만남을 볼 수 있었다면 무척 재미있었을 듯 하다. 그랬다면 기독교의 종교적 문제에서 큰 주제이기도 한 동물과 인간의 친밀성이라는 사례를 탐구할 수도 있었으리라.

백인 위주의 서구에서 교회는 역사적으로 섹슈얼리티에 관심을 보여왔다. 섹슈얼리티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시할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성행위는 교회법과 민법의 연합을 통해 규정되었다. 교회가 이를 촉진했고, 결혼과 참회, 안수라는 은총의 의식을 통해



구현했다. 섹슈얼리티는 개인의 생식력을 감시하는 것이었기에 문제가 되었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규제는 공동체의 성장과 확장에도 적용됨으로써 재생산에 초점을 맞춘 성행위가 이뤄지게 했다. 목표는 성과(인구 통제 및 성장)를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활동(개인과 집단의 비생식적 쾌락)을 줄이는 것이었다. 모더니티를 관통하는 일탈의 개념을 구성하는 데 있어 생물학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추론은 쉽사리 풀리지 않는 난제다. 국가-교회의 동맹은 자위, 구강 성교, 남색, 동성애와 같은 행위를 부자연스럽고 변태적인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성공적인 생식으로 이어지지 않는 친밀한 관계를 (유죄로 간주하고 범죄로 취급하며 처벌함으로써) 최소화했다.² 이러한 행위에는 동물 애호증(인간이 다른 종의 동물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과 수간(인간과 동물 간의 성관계)이 포함되기도 했다. 문명의 벡터에 도전하고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을 뒤집어 종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일탈, 괴물, 잡종을 만들어 낼 잠재력은 생식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 로레인 대스턴이 주장한 바와 같이,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전통을 따르는 기독교 신학자들은 수간을 간음이나 다른 성적인 범죄보다 더 나쁜 죄악으로 간주했다. 그런 식의 짝짓기는 ‘자연의 주인’이 그린 종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며, 따라서 “자손이 수컷인 모체를 복제하지 못할 때 시작되어 [...] 부모의 종과 전혀 닮지 않은 극한의 지점까지 이어지는 연속체”를 중단시킬 괴물을 창조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다³.

2. 도덕적 질서와 자연 질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Lorraine Daston, *Against Nature* (Cambridge, MA: MIT Press, 1992), 124.

3. Ibid., 12-13.

다시 《레이디호크》에 관해 이야기해보자면, 서로 다른 종의 친밀감을 탐구하여 주교의 저주를 뒤집을 가능성은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대를 휩쓴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세 시대에는 인간이 변화시키는 세계의 통합을 위한 지형을 갖추기 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는 인간(주로 백인 서구 남성)이 지배적 존재가 되어 비인간 존재들과 공간을 제거하며 꾸준히 지배하는 세계였다.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중심적 존재일 뿐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적 자연 철학과 같은 인식론적 전통에서 이미 시작된 정도와 위계, 포함과 배제를 통한 구분, 분류의 과정을 구축하게 될 것이었다. 이러한 전통의 대부분은 기독교 신학에 의해 자연적인 도덕 법칙과 공리로 전환되었고, 과학 혁명은 이를 신성한 논리와 의지의 표현으로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 그렇기에 18세기에 카롤루스 린네, 조르주 루이 르클레르 드 부폰과 같은 유럽의 자연주의자들이 자연계에서 서열을 결정하고 인류를 다른 종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떼놓으려는 분류학 체계를 만든 건 놀랄 일이 아니다. 문명화된 인간은 다른 동물과 섞이지 말아야 했는데, 이는 곧 인류가 본질적으로 “자연”에 속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었다.

인간은 이런 식으로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과 더불어 구분짓기를 통해 인간됨을 발휘했다. 인간은 자신의 야성이 마치 인간의 진보라는 서구적



서사를 배반하는 것인양 자신의 행동과 몸을 길들여 이를 숨기는 법을 익혔다.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여성은 남성보다 하등하고 동물에 더 가까운 존재로 여겨졌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의 암컷이 일반적으로 더 영리하고 기억력이 좋다고 주장하긴 했지만⁴ 암컷을 “기형화된 수컷”⁵으로 여겼다. 여성은 더욱 철저하게 자신의 몸에서 동물의 흔적을 제거해야 한다.

4. Aristotle, *Historia Animalium* VIII (IX),1, 608a25–28, 608b10.

5. Aristotle, *On the Generation of Animals* IV.6, 775a16. 아리스토텔레스의 여성에 대한 이해와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철학 사상에 미친 영향을 갱신하고 고찰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Sophia Connell, *Aristotle on Women: physiology, psychology, and politics. Elements in Ancient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이와 동시에,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이같은 권력은 생식 수단과 힘의 통제에 집중하며 대체로 남성적 성격을 띤 의료화를 통해 더욱 진전하게 되었다⁶. 이런 체제를 받아들이는 걸 거부하는 이들은 “이단자, 신앙 요법자, 순종하지 않는 아내, 감히 혼자 살려드는 여자, 주술을 부려 주인의 음식에 독을 타고 노예 반란을 부추긴 여자”⁷로 여겨졌다. 미적 감각과 위생은 과학(면도, 향수, 병원균이 없고 오염되지 않았으며 생식 가능한 신체), 윤리와 종교(깨끗한 몸에 깃든 깨끗한 영혼)와 짝을 이뤄 현대적이고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문명의 이미지를 이뤘다.

6.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Silvia Federici, *The Caliban and the Witch* (Brooklyn, NY: Autonomedia, 2004)

7. Ibid., 11.



《레이디호크》는 분류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두 캐릭터의 사랑을 통해 현실과 환상, 도덕과 부조리가 공존하는 중세 우화집의 전통을 또한 재조명할 수 있었다. 중세에 이뤄진 동물에 대한 다양한 묘사는 이를 통해 동물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인간 및 비인간의 영역을 복합적으로 결합시켰다⁸. 영화에서 이런 친밀감을 구현할 수 있다면 인간과 동물이 얼마나 많은 것을 공유하는지 보여주게 될 것이다. 많은 생명체는 사랑과 피조물로서의 느낌, 자기 밖에 존재하는 것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욕구를 공통적 특징으로 삼는다. 인간은 자신을 다른 존재와 차별화하려고 시도해왔으며, 이와 동시에 자신과 다른 동물,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동물들과 나누는 동물적 정서의 표현과 구현, 심지어 사랑마저도 인식해 왔다.

8. 중세 설화에 대한 페미니즘적 해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Carolyn Van Dyke, "Women and Other Beasts: A Feminist Perspective on Medieval Bestiaries," *mff*, Vol. 54, no. 1, 2018: 94-117.

《레이디호크》는 주교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이성애 커플이 핵가족을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에 대한 이야기로, 두 사람이 인간의 모습을 되찾고 싶어 하는 진짜 이유는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와 다른 결과, 즉 여성과 남성의 결합과 출산의 능력을 넘어 대체 어떤 영향, 전망, 욕망이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제시하는 결과도 가능했을지 모른다. 또 다른 《레이디호크》는 여성과 늑대의, 서로의 동반자가 되어 식량과 따스함, 친구, 안전에 대한 공통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 남성과 새가 필사적으로 생식의 파트너를 찾는 게 아니라 각자의 공간과 시간과의 관계를 통해 존재한다는 걸 배우는 결론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테다. 이는 인간이 독점하고 있는 우정, 사랑, 돌봄 등의 용어와 개념을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에 몹시 중요한 일이다. 인터넷에는 《레이디호크》에 대한 대안적 플롯이 넘쳐난다. 까마귀와 고양이, 오소리과 늑대, 사슴과 원숭이, 인간과 문어의 우정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이들은 함께 놀고, 서로 쫓고 쫓기며, 때로는 서로를 욕망하고 자극하기도 한다. 픽션으로 꾸며낸 게 아니라, 대부분 아마추어가 실제로 촬영한 내용으로 보는 이들의 감각을 자극한다. 사람들은 자연계에 대한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설명의 마지막 잔재를 넘어 동물 역시 사람이라는 사례를 찾아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를 쓴다. “실제” 세계로부터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제 《레이디호크》가 이런 사례들을 따라 해방과 변화, 생태적 교차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차례다.

이 글은 본 프로젝트에 앞서 알토 대학교 예술대학의 파트리시아 코스탄틴과 바삼 엘 바로니가 2023 《헬싱키 비엔날레 예술 매개 포럼》을 위해 또 다른 버전으로 작성된 바 있다.



저자 소개

필리파 라모스 박사는 전시, 텍스트, 강연, 출판을 통해 동시대의 예술과 생태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큐레이터다. 아트 바젤 필름의 큐레이터이자 온라인에서 운영되는 아티스트 시네마인 Vdrome의 창립 큐레이터이며, 루치아 피에트로이우스티와 함께 《The Shape of a Circle in the Mind of a Fish》(2018년 창립) 페스티벌을 공동 창립했다. 2024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카탈루냐의 전시 《Bestiari》의 기획을 맡았다. 현재 바젤의 스위스 응용과학대학교 (HGK Basel FHNW) 예술 젠더 자연 연구소에서 강사로 재직 중이다.



편집: 잉고 니어만

영어 편집: 로산나 맥래플린

한국어 번역: 박재용

일러스트레이션: 에바 파브레가스

그래픽 디자인: 아나 도밍게스 스튜디오

한국어판 그래픽 디자인: 박지현

© 2024, 필리파 라모스, 에바 파브레가스 & 와일드 퍼블리싱

스위스 바젤 응용과학대학교(HGK Basel FHNW) 예술 젠더 자연 연구소(Institute Art Gender Nature) 소속 기관